



[경제종합] 은행 금리경쟁 자제 요청하는 금융당국 04

창간 20년 since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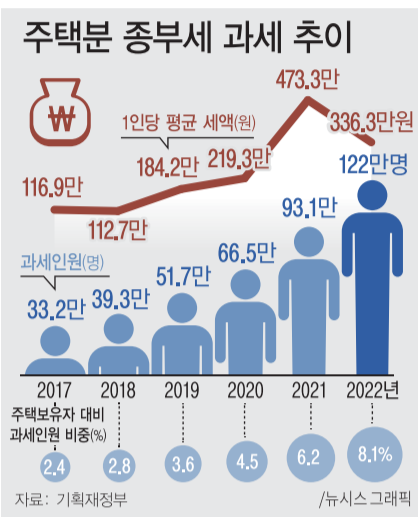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419.50 (-24.98)	코스닥	718.57 (-13.35)
금리 (국고채 3년)	3.837 (+0.050)	환율 (원/달러)	1354.70 (+14.40) (21일)

이제는 일반층 세금된 중부세 올해 130.7만명에 7.5조 고지

주택분 중부세 5년새 4배 증가 1가구 1주택자 전년비 50% ↑ 공시가 역전에 조세저항 클 듯



올해 주택·토지분 종합부동산세(중부세)는 130만7000명이 약 7조5000억원 가량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주택분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5년 전보다 4배가량 늘었다. 올해 집값이 하락했지만 과세액은 올해 초 오른 공시가격을 토대로 매겨져 올해 중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중부세 고지 인원(세액)은 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5000명 등 총 130만7000명(주택분·토지분 중복인원 2만8000명 제외)이다.

과세액은 주택분 4조1000억원, 토지분 3조4000억원으로 총 7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중 주택분 중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93만1000명)보다 28만9000명 늘었고, 세액은 3000억원 줄었다. 5년 전인 2017년(33만2000명)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대상은 23만명으로 전년(7만7000명) 보다 50% 가량

증가했다. 2017년(3만5866명)과 비교하면 6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토지분은 1년 전보다 1만1000명 늘었고, 세액은 5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중부세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중부세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데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으로 올해 초 발표된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 올랐다. 반면 중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기본공제금액 6억원은 2006년 이후

그대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1년 11억원으로 공제액이 인상됐다. 공시가격이 중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과세대상자가 많아졌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과세액으로 보면 올해 7조5461억원으로 지난해(7조2681억원)이 7조원대 규모로 집계됐다. 5년 전(1조6865억원)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많다.

문제는 올해 하락한 집값은 내년 공시기에 반영되고 세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올해 납부 대상자들의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급증한 과세인원과 세액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 주택분 중부세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중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중부세 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돼 고지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기재부는 “정부가 제출한 중부세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그간 급증한 과세인원과 세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급격히 늘어난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중부세 개편안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대치동 미도아파트, '35층 규제' 첫 폐지 1983년에 준공된 강남 대치동 '미도아파트'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50층 대단지 아파트로 변신한다. 서울시의 '35층 룰' 폐지가 처음 적용되는 단지가 될 전망이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미도아파트 전경. <관련기사 2면> /뉴스시스

바이오에 공들이는 식품업계 대체단백 등 미래소재 키운다

CJ제일제당, 바이오 매출 25% ↑ FNT조직 신설 등 관련 R&D 강화 오리온도 중국 내 바이오 공략 박차

주요 식품기업들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바이오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식품 사업과 접점이 있는 바이오 사업 경쟁력을 키워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올 3분기 경쟁사들이 세계적인 곡물가격인상과 환율인상에 고전하는 가운데에서도 호실적을 기록했다. 주력 식품사업인 '비비고'의 해외 판매 성적도 좋았지만, 바이오 사업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CJ제일제당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을 제외한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386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 증가했고, 매출액은 5조1399억원으로 21.7% 늘었다. 아미노산과 조미 소재 등 그린바이오(생물체가 가진 기능과 정보를 활용해 각종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가 주력인 바이오사업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4% 증가한 1조3094억원으로, 2분기 연속으로 1조3000억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은 원부재료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25.8% 증가한 1603억원을 나타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FNT(Food&Nutrition Tech) 사업부문'도 신설했다. 신설 부서는 미래 식품소재, 영양 솔루션, 대체 단백질, 배양 단백질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바이오 관련 R&D를 강화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4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바이오사업은 해양 생분해 소재 PHA와 CJ바이오사이언스 중심의 레드 바이오 사업 등 미래 신수종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자 업계 대표 주자인 오리온은 지난 2017년 글로벌 종합 식품 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2019년 3월 주주총회에서 정관에 제약·바이오 사업을 추가했고, 이듬해인 2020년 중국국영 제약사인 산둥루강의 약과 합법인을 설립하면서 중국 내 바이오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간처럼 사고... ICT 미래기술 혁신 주도



(중) 초거대 AI 서비스

한국어 특화 언어모델 속속 개발 상품추천에 상담, 감성케어까지 주요기업 각종 산업현장에 투입

통신사·포털 등 주요 IT 기업들은 미국에서 출시된 AI(인공지능) 초거대 언어모델인 'GPT-3'에 대항할 한국어에 특화된 초거대 AI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특히 자사의 주요 서비스에 AI 기술을 속속 적용하고 나섰다.

네이버는 지난해 5월 국내 기업 중 가장 빨리 초거대 AI인 '하이퍼클로바' 출시를 발표했으며, 네이버의 각종 서비스에 이 AI를 적용하고 있다. SK텔레콤은 GPT-3의 한국어 특화 버전을 자체 개발해 서비스에 적용하기 시작했

다. KT는 초거대 AI인 '민음'을 이달 상용화한다고 발표했다.

또 LG의 AI 연구원은 초거대 AI인 '엑사원'을 개발해 산업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카카오도 GPT-3 모델 기반의 한국어에 특화된 AI 언어모델을 갖춰 브에 공개했다.

미국의 오픈AI가 AI 언어모델 'GPT-3'를 2020년 6월에 발표했는데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AI가 더 정교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GPT-3는 무려 1750개의 파라미터를 갖췄는데 기존 GPT-1의 1000배에 달하며, GPT-2의 117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GPT-3의 API(프로그램 언어 형식)를 분석해보면 97% 영어다. 한국어는 0.01%가 적용된 데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한국어에 특화된 AI 언어모델 개발에 나선 것이다.

◆초거대 AI 개발 경쟁 '활발'

네이버는 크게 검색, 쇼핑, 클로바, 플레이스에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를 적용했다. 검색에서 사용자가 오타를 입력하거나 맞춤법을 잘못 입력할 경우, 올바른 단어로 전환해 검색해주거나 적절한 검색어를 추천해준다. 네이버쇼핑 내 개인화 큐레이션 서비스인 '포유'에도 하이퍼클로바가 적용돼 더 정교화된 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하이퍼클로바의 딥러닝 기술이 '클로바 노트'의 음성인식 엔진 'NES T'에 적용돼 정확도를 개선시켰다.

네이버 관계자는 “하이퍼클로바는 언어모델을 넘어 텍스트 뿐 아니라 이미지, 음성 등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멀티모달' 모델로 확장해나감에 SM E(중소상공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면에 계속)

/채윤정 기자 echo@

뉴스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尹, 통일·대북정책 정립...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 /사진 뉴시스
- ▲한국, AFB·SCF 진출... 기후재원 국제논의 참여기반 마련

- ▲한반도 재전개 B-1B폭격기, 괌에서 美 본토 복귀
- ▲軍, 북한의 ICBM 실전배치 주장에 “정보 가지고 있지 않아”



- ▲한국판 스페이스X ‘국방우주전문기업’ 지정제 도입
- ▲이재명 檢수사 임박에 민주당 혼란... ‘대여 강경투쟁’ vs ‘李 사과·책임’ /사진 뉴시스